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중등부

중현의 만나

바벨론

1과 · 지성소를 향하여 히브리서 10:19~20

2과 · 감자의 세상 창세기 10:6~12

3과 · 높아지는 세상 창세기 11:1~4

4과 · 내려오신 하나님 창세기 11:5~9



중등부

2014.5

바벨론

교재
구성

5월 4일 1과

지성소를 향하여

히브리서 10:19~20

믿음의 눈으로 은혜가 만든 길을 보라

5월 11일 2과

강자의 세상

창세기 10:6~12

믿음의 눈으로 강자들의 세상을 보라

5월 18일 3과

높아지는 세상

창세기 11:1~4

믿음의 눈으로 높아지려 하는 세상을 보라

5월 25일 4과

내려오신 하나님

창세기 11:5~9

믿음의 눈으로 참으로 강하고 높으신 주님을 보라

교과
전개



도입

마음 열기

5분



전개

말씀 새기기

10분



적용

예수님과 함께

5분

1 과

지성소를 향하여

POINT

믿음의 눈으로
은혜가 만든 길로 보라

198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19~20

201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4 주일

5 월요일

☐ 잠언 15장

6 화요일

☐ 잠언 16장

7 수요일

☐ 잠언 17장

8 목요일

☐ 잠언 18장

9 금요일

☐ 잠언 19장

10 토요일

☐ 잠언 20장

장년용 <충현의 만나> 매일성경묵상을 활용하세요.

담대함

'담대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큰 담대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보세요.

Tip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함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2)

Bible Study

말씀 새기기

믿음의 눈으로 은혜가 만든 길을 보라

우리는 어떤 노력과 공로, 그리고 신분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죄인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 만드신 이 길 위에서는 이 땅과 우리가 만든 모든 차이와 조건(인격, 신분, 품위, 지식, 돈)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님께로 향한 이 은혜의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의 혈과 육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태어난 참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가 만든 이 길을 담대함으로 걷습니다. 이미 죽었고 영원히 죽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큰 담대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함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를 믿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은 유일무이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신 길입니다. 이 길을 내는 데 죄인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일조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감사드리며 걸으십시오. 이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지금 담대하게 한 걸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은혜가 만든 이 길을 바라보십시오.



◆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 ① 예수 그리스도
- ② 나
- ③ 이단 교주들
- ④ 마호메트, 공자, 부처

◆ 은혜가 만든 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형제와 자매가 걷는 길이다
- ②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길이다
- ③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를 믿는 이들이 걷는 길이다
- ④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만든 길이다

◆ 1과의 Point를 써 보세요.

◆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로마서 3:25~26

히브리서 9:15

요한복음 14:6

◆ 은혜가 만든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함께 해요!

함께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그리고 반 친구들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defined by a dashed line, intended for a drawing activity.

믿음의 눈으로 은혜가 만든 길을 보라



출처: www.Lloydjones.org

Free Note



2 과

강자의 세상

POINT

믿음의 눈으로 강자들의 세상을 보라

- ④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 ⑦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 ⑧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 ⑨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 ⑩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 ⑪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르호보달과 갈라와
- ⑫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창세기 10:6~12

2014. 5

4	5	6	7	1	2	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1 주일

12 월요일

☐ 참언 21장

13 화요일

☐ 참언 22장

14 수요일

☐ 참언 23장

15 목요일

☐ 참언 24장

16 금요일

☐ 참언 25장

17 토요일

☐ 참언 26장

장년용 <홍현의 만나> 매일성경묵상을 활용하세요

멋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Tip 큰 자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9:4)

Bible Study

말씀 새기기

믿음의 눈으로 강자들의 세상을 보라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 가운데 니므롯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속담에도 '용감한 사냥꾼'으로 등장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큰 성을 건설했고, 그가 통치한 제국은 시날 땅의 바벨에서부터 레센에 이르기까지 광대했습니다.

니므롯으로 대표되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실상과 결과는 창세기 11장에서 이어집니다. 니므롯은 바벨론의 조상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는 자들로, 적그리스도의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립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남보다 강자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점철됩니다. 우리 모두는 남의 종이 되는 것보다 남을 종 삼은 것을 추구하며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이 땀 흘려 쌓은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부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자기의 성을 세우며, 자기 이름을 내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숴 버리십니다.

진정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자로 또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그분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강자들의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은혜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를 보십시오.





◆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당시에 매우 유명한 용사였다
- ② 바벨론의 조상이다
- ③ 큰 성을 다스렸다
- ④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
- ②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셨다
- ③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 ④ 생명 자체이시다

◆ 2과의 Point를 써 보세요.

◆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이사야 14:4~5

누가복음 17:26~27

요한계시록 17:4~5

◆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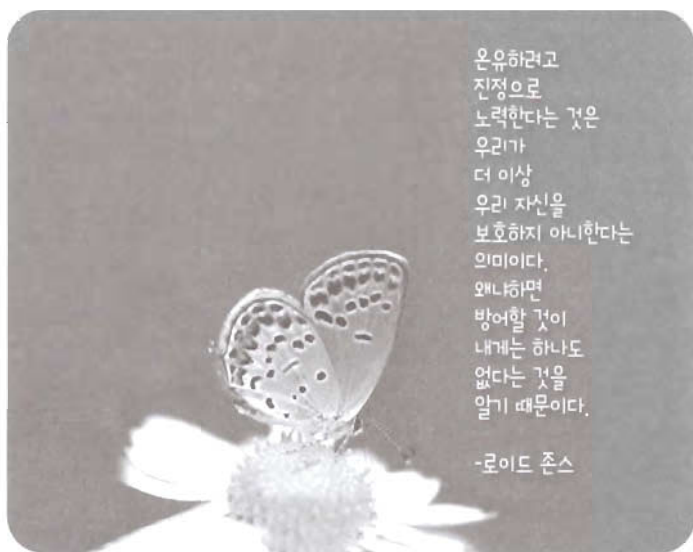
우리가 할 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그처럼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나누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강자들의 세상을 보라



출처: www.LloydJones.org

Free Note



3 과

높아지는 세상

POINT

믿음의 눈으로 높아지려 하는 세상을 보라

¹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²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³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⁴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1~4

201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8 주일

19 월요일

☐ 마태복음 23장

20 화요일

☐ 마태복음 24장

21 수요일

☐ 마태복음 25장

22 목요일

☐ 마태복음 26장

23 금요일

☐ 마태복음 27장

24 토요일

☐ 마태복음 28장

장년용 <홍천의 만나> 매일성경묵상을 활용하세요.

명작

각 분야에서 명작(master-piece)이라 불리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것이 명작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Tip 가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8)

Bible Study

말씀 새기기

믿음의 눈으로 높아지려 하는 세상을 보라

홍수가 끝난 후 셈과 함과 야벳으로 대표되는 노아의 후손들은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함의 후손들도 점차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가 되기 위해 시날이라는 평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용사 니므롯의 영토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돌 대신 구운 벽돌로, 또 진흙 대신 역청으로 매우 튼튼하고 거대한 성과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로 뭉쳐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 높이는 하늘에 닿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대적이었습니다. 바벨탑이라는 명작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도전 정신은 결국에는 하나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직접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 눈에 보기에 참으로 형편없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작품입니다. 생명의 길을 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손수 만드신 유일무이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 작품을 갈보리 산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조건 없이 하나가 되며, 그 십자가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죄인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눈으로 높아지려 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천히 낮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 함의 후예들이 시냇에서 성과 탑을 쌓은 이유가 아닌 것은?

- 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 ②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 ③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 ④ 하나로 뭉쳐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유일한 작품이다
- ② 육신의 눈에는 형편없고 흉물스러울 뿐이다
- ③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난다
- ④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한 수단이다

◆ 3과의 Point를 써 보세요.

◆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신명기 21:23

누가복음 23:33

골로새서 2:15

◆ 십자가가 '명작'인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누가 무너뜨릴 수 있나?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내가 할 수 있다'는 인간들의 교만은 바벨탑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의 바벨탑은 무엇인가요? 그 바벨탑을 그리고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적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높아지려 하는 세상을 보라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을 주고
제 목회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용기를 주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제게 힘을 지적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우리가 죄인들인 것처럼 설교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



출처: www.Lloydjones.org

Free Note



4 과

내려오신 하나님

POINT

믿음의 눈으로 참으로 강하고 높으신 주님을 보라

- ☞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 ☞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들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 ☞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 ☞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 창세기 11:5~9

201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5 주일

26 월요일

☐ 마가복음 1장

27 화요일

☐ 마가복음 2장

28 수요일

☐ 마가복음 3장

29 목요일

☐ 마가복음 4장

30 금요일

☐ 마가복음 5장

31 토요일

☐ 마가복음 6장

정년용 <충현의 만나> 매일성경묵상을 활용하세요.

바벨탑

스마트폰으로 당랑거철(螳螂拒轍)이란 사자성어를 검색해 보고
그 의미를 적어 보세요.

Tip 크신 하나님

"누가 손바닥으로 비뚤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잣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이사야 40:12)

Bible Study

말씀 새기기

믿음의 눈으로 참으로 강하고 높으신 주님을 보라

함의 후손들이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로 뭉쳐 온 지면에 흠어지지 말자”라고 외치며 성과 탑을 쌓던 곳에 하나님께서 내려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높이 쌓아 봐야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인이 아무리 쌓고 쌓아 올라가 봐야 하나님의 발 밑이더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악한 행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늘만큼 높이려고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뿔뿔히 찢어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던 언어를 흠으셨고, 그들의 악한 계획은 탑과 함께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려 흠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창세전에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은혜의 십자가 아래 다시 모으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놀라운 모임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흠어지십시오. 복음 들고 흠어지는 자녀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에게 희망이 있다 하고, 그 희망을 보여 주겠노라 하며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함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걸음을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참으로 강하고 높으신 주님을 보십시오.





◆ 합의 후손들이 쌓던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 ① 내려오셨다
- ② 올라오셨다
- ③ 내려가셨다
- ④ 올라가셨다

◆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은?

- ① 흠으시고 모으시고 흠으신다
- ② 계속 흠으신다
- ③ 계속 모으신다
- ④ 계획도 섭리도 없으신다

◆ 4과의 Point를 써 보세요.

◆ 성경을 찾아 써 보세요.

창세기 6:5

마태복음 24:31

사도행전 1:8

◆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본 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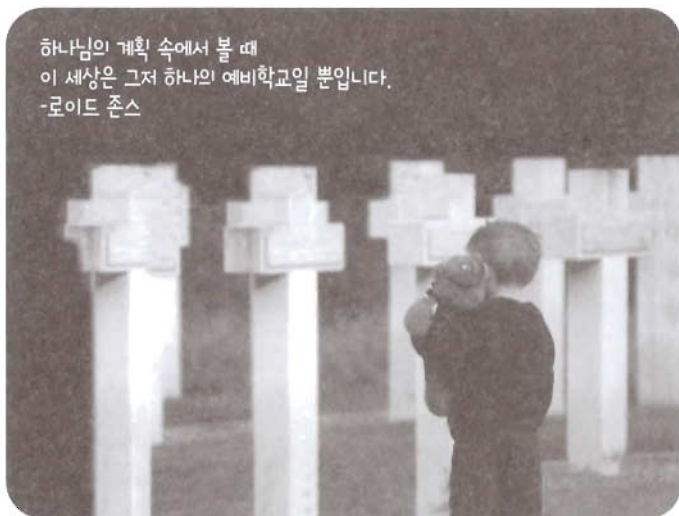
하나님의 웃음

시편 2편 1~4절을 읽고, 이 시가 그리는 하나님의 웃음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Only Jesus 묵상하기

믿음의 눈으로 참으로 강하고 높으신 주님을 보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때
이 세상은 그저 하나의 예비학교일 뿐입니다.
-로이드 존스



출처: www.Lloydjones.org

Free Note











Free Not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과 반 이름:

충현의 만나 2014년 5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김규식 · 그림 김현아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